

### 동서남북



김 동 길  
전북도의원

매일 밤 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한 후 집에 들어와 잠을 청하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이른 새벽 다시 학교로 향하는 우리의 아이들... 무거운 가방을 메고, 피로한 모습을 보이며, 지친 어깨를 늘어뜨린 청소년들의 모습에서 우리사회의 암울한 미래가 보인다. 이들에게는 방과 후 여가시간도, 휴일의 여유로움도,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한 시간도 없다.

사회양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이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양

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은 성공과 부를 향한 계급상승의 필연적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아무런 목적 없이 경쟁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마련 될수록 교육의 질적 향상 및 여건의 개선보다는 그에 따른 피해 학생만 늘어 간다.

계층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부유한 곳의 아이들은 비록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더라도 경쟁의 대열에 들 수 있어 행복(?)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계층과 지역의 아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 소외된 체로...

#### 사회의 가치·교육 본질 왜곡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들은 누구인가? 정답은 그 누구도 현재의 교육상황에서는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 달성될 수 있는 정책적 기조를 마련하겠다 하면서도 그 본질이 무엇인지

를 망각하거나 아예 본질 자체에 대한 함의점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육 양극화의 문제는 사회의 가치와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본의 질서로 교육을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의 기준으로서 직업 혹은 성공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여 참된 교육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바로 세워줘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이루어야할 교육의 진정한 가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이상적인 구호에 그칠 뿐 실질적인 교육과정상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규 교육과정으로부터 변방의 영역으로 분류되어진다.

교육현장에는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 상황의 경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을 하고 있다. 공정하고 정상적인 경쟁 구도를 마련해 주어야 하나, 누구나 경쟁으로부터 얻는 성과나 발전없이 모든 학생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회양극화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고, 이러한 양극화의 극단에 있는 각 계층의 학생들 모두 불행한 삶을 살며 왜곡된 교육만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 진정한 내용 전달해줘야

이러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왜곡하면서 정작 이러한 것들이 미래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의외치고 있는 우리사회의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누구나 양보하지 않는다. 부모, 학교, 국가 전체가 학생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경쟁을 부추겨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상상하며, 양극화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도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을 바꾸어 교육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내용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 社 說

## 18대 총선, 옥석 가리자

18대 총선 선거운동이 오늘로 초반을 넘어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한 나라당은 과반의석을, 통합민주당은 개헌지지선 확보를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전북지역은 통합민주당이 공천 후유증으로 무소속의 개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난(?)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결과적으로 여야 대결보다는 야야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초반부터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선거는 실종된 채 공천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하며 때론 비방하고 때론 감성에 호소하는 데에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 후보의 절대 다수가 현역의원인데도 무소속 후보는 "인물을 보고 선택해 달라"며 "인물론"을 들고 나오는 희한한(?) 상황까지 벌어졌다.

반면 상당수의 민주당 후보는 과거 총선 때처럼 '민주당 바람'이 불려 주길 은근히 바라고 있다.

이들은 당의 기관인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각각 서울 종로와

동작을 선거구에서 당의 명운과 개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백병전에 가까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면서 전북지역 지원유세가 어렵게 되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오늘로 총선 선거운동이 닷새째를 맞는다. 앞으로 9일 후에는 도내 11개 선거구에서 11명의 선량을 선택해야 한다.

역대 전북지역 총선 투표행태를 보면 도민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에 좌우돼 투표했다는 점을 지을 수가 없다.

지난 13대 총선부터 17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평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특정정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도민들도 진정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서도 여야가 존재하는 정치구도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선진 유권자 의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무조건 정당만 보고 한 표를 행사하는 구태의연한 행태에서 벗어나 누가 진짜 지역발전과 국가이익에 적합한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숙고해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 전봇대, 도시 미관 해치지 않아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전봇대가 행정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부각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전봇대나 철탑에 걸쳐있는 전선을 지화로 매설하는 지중화(地中化) 요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중화 사업비를 충당하는 모양이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중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지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 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지중화 수요는 어느 지역에서나 증가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전선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전봇대의 지중화율은 12.7%지만 그나마도 전남북과 강원 지역은 3내지 6%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대도시 지역인 서울과 대전은 각각 51.3%, 45.2%로 절반 안팎의 전봇대가 이미 땅속에 묻혔다. 하지만 전북 지역 도시들의 경우 과연 그러한 수준에 언제나 유지할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그래도 전주시의 경우 최근에 설치하는 가로등의 경우 대부분 전선을 매설하여 도시 미관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문제는 그렇게 미관을 고려하는 도시나 지역의 노력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전이 얼마나 부합되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기존 도심지의 지중화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은 그렇다 치고 새롭게 주택가가 형성되고 도로가 만들어지는 공인 지역에 전봇대부터 설치하는 무분별하게 전선이나 기타 케이블을 무분별하게 가설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전의 사례로 덕진공원 지역이나 인근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 건설 지역으로 통하는 지역에 전주시는 가로등 설치 등과 관련하여 전선의 지중화 사업을 착실히 하고 있건만 그 옆에 불과 1년 혹은 2년전에 설치된 한전의 전봇대에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케이블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다.

한전의 전봇대가 먼저 들어선 것도 답답한데 수익만을 고려하여 전선인지 광케이블인지 도대체 구분이 되지 않는 선들을 어지럽게 가설하는 것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 걸맞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하여 미관을 보호할 뿐 한전은 수익만 기대하고 미관에 대해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

### 모 악 산

#### '영화도시' 전주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갠지스강'은 인도 최고 고전도시의 하나인 '바라나시'에 있다. 갠지스강에 이르기 전 뱀새가 펄펄 날듯한 시기지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길게 늘어선 행렬을 보았다. 영화를 구경하기 위한 사람들이었다. 영화관 위에 큼직하게 세운 선전간판에서 이 영화가 클라크 게이블, 비비안 리가 주연하는 미국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임을 알 수 있었다. 서있는 줄로 보아 대단원이다.

▼영화도 명화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화를 좋아하는 민족이 인도인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명화 '바람과 함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 틀림없이 상연되고 있을 것이라는 어느 유명 영화인의 말이 상기됐다. 좋은 영화는 그만치 사랑과 동경의 화신으로 인간에 심오한 철학적 영감까지도 불러낸다는 말도 들었다. 이런 영상미학의 극치가 오늘의 영화산업을 세계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전주를 영화도시라 하면 좀 생소할지 모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전주는 1950년대 한국영화의 중요한 메카로 등장되었던 과거가 있다. 흑백영화에서 천연색 영화로 제작한 영화 '선화

공주', '아리랑', '피아골', '애정산맥' 등 영화사에 남는 영화들이 모두 전주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무렵 전주에서 제작된 영화 편수에서도 알 수 있다. 전국의 영화를 전주에서 찍었다

▼이제 고인이 된 전주의 영화인 탁광(卓光) 선생은 그 무렵 최고의 스타인 김진규, 최무령, 노경희, 조미령 등 쟁쟁한 1급 배우들이 전주를 하루가 멀다하고 문턱밖으로 뺐고 들려주었다. 전주가 어쩔 수 없이 영화의 도시로 부활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이면사때문이다. 그 시동이 걸리고 있다. 세트장을 겸비한 종합촬영장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종합촬영장은 경기도 남양주에 이어 두번째다.

▼전통적으로 고전적 이미지가 풍기는 도시의 기품이나 교동, 풍남동 일대의 100년 가까이 된 한옥들이 즐비하고 조선시대의 향교, 객사, 덕진 조경묘, 경기전, 오목대 등 고전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전주다. 110억원을 들인 종합촬영장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세트장에 대형 스튜디오를 곁들인 제작실, 분장실, 스텝실까지 갖췄다. 전주가 영화도시로 부활할만한 조건이다.



吳龍基의 생활한자

#### 扁額, 裝潢 (편액, 장황)

- ▶扁(특별한편, 작을편) : 戶(집호)가 부수이다. 扁(한쪽편) 扁(얇은편)
- ▶額(이마액) : 頁(머리액)이 부수여서 뜻을 나타내고 客(손님객)이 변음되어 음을 나타낸다. 項(목항)
- ▶裝(꾸미장) : 衣(옷의)가 부수어서 뜻을 나타내고 冫(씨익얼장)이 음을 나타낸다. 悤(속리) 悤(겉질복)
- ▶演(몰이름황) : 辵(삼수변)이 부수어서 뜻을 나타내고 黃(누를황)이 음을 나타낸다. 橫(가로황)

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의 지침이 되는 경우가 있어야겠다. 歷右銘(좌우명)이라고 한다. 자기 자리의 우측에 새겨놓고 항상 보면서 마음을 다지는 뜻이었다. 事來則應(사래즉응) 事去則靜(사거즉정)이라, 어떤일이 앞에 오면 경중히 맞아 처리하고 그 일이 끝나면 교요히 본심으로 돌아가 마음을 청정하게 지키는 것이 지성인의 자세이다. <도덕회 전주지부장>

□해설  
흔히 表具(표구)라고 하는데 장황이 된 뜻이라고 한다. 작은 액자를 편액

1981년 설립, 원경직접지도  
전주인문교육원  
TEL. (063) 286-4888

본란의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누구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열린마당입니다.  
홈페이지(www.domin.co.kr)에 접속 후 '독자투고' 코너에 글을 남기시거나 또는 Fax: (063) 251-7217~8로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 우리 회사 정보경쟁력이 쭉~업그레이드!

“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정보 경쟁력이야말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책이나 경쟁사 동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늘 아쉬웠는데 '뉴스코리아'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이용하고부터는 경영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신감도 부쩍 커집니다. ”



## 정책, 여론, 고객, 경쟁사 모니터링은 물론 위기관리까지 뉴스코리아로 한번에 끝내십시오!

- 각 언론사 기사의 통합 DB화를 통한 빠른 검색 및 수집
- 신문지면 PDF 스크랩 기능에 의한 효율적 홍보
- 링크, 키워드, 카테고리 등 다양한 맞춤형 뉴스
- 방대한 자료와 합리적인 가격의 뉴스보도사진 서비스



문의 : 한국언론재단 뉴스제작사업단(02-2001-7853)



한국언론재단  
Korea Press Foundation